

# ‘생태문화축제’로 발전하는 고성명태축제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명태요리시식회

강원도 고성은 강원도 동북부에 위치하며 겨울철에는 영서지방보다는 비교적 따뜻한 편이고 여름철에도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서늘한 곳이다. 고성은 1914년 고성군과 간성군이 합쳐지면서 9개 면을 관할하게 되었고, 1919년에는 간성군을 고성군으로 개칭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고성군의 인구는 총 3만 명 정도이다.

최근에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첨단해양산업을 육성하면서 어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전통재래장터인 거진시장은 1990년대 이후부터 명태 등 어획량 급감과 인구감소, 유통 환경변화에 따른 재래시장 경기침체 장기화로 시장기능이 약화되었으나 고성군의 지속적인 도시계획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시장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해졌다.

고성군 주민의 10.1%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명태 어획으로 활발한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고성군 어업인구는 강원도 어가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강원도 해양수산업에서 고성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수산물 생산량 통계(2010.06.30)를 보면 명태는 고성군의 다른 수산물에 비하여 전체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고성은 오징어, 가자미, 꽂치, 문어, 임연수어, 대구 등이 많이 잡히는 곳이기도 함) 전국 명태 어획량 중 62%가 고성군에서 잡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성군은 우리나라 제1의 명태 고장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명태 어획량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여 고성군의 대표 어류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태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명태가 우리나라 서민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친근한 우리의 재료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서민들의

밥상에 올리기에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버린 어종이 되어서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고성명태축제’는 1999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해마다 군내의 10여 개 항구를 돌아가며 정월 대보름 전후에 3일 동안 열렸던 축제이다. 그러나 2011년에는 10월 말경 관광성수기에 맞춰서 개최하였다. 2010년까지는 겨울철 비수기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산 명태 포획을 위해 축제를 1, 2월에 개최했지만, 이를 단풍철인 10월로 늦춰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축제의 주목적이 명태라는 특산물의 판매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관광 이미지 제고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태축제는 당초 고성군의 겨울 축제로서 명태와 겨울이라는 컨셉을 연결시켰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지명도를 발판 삼아 겨울축제라는 계절적 한계성을 벗어나 고성군의 해양체험문화와 연계시키고자 한 것이다.

행사장이 협소하고 항구를 사용하면서 야기된 문제, 주차난 등을 감안해 축제 주무대도 기존 거진항 위판장 일대에서 벗어나 해변과 배후 유흥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진읍 입구(거진11리 해변 일대)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명태축제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적인 해양테마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지역축제의 전반적인 추세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양상은 특정한 특산물의 생물학적이고 자연적 또는 기후적 한계에서 넘어서고자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도에서 자연적인 조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축제를 벌이던 것에서 최근에는 자연적 특성을 문화적 요소와 결합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성의 명태축제가 이것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고 볼

고성군 거진항 명태축제  
10월 10일 개최  
10월 10일 개최



고성군 거진항 전경

수 있다.

식품으로써의 명태는 부위별로 다양한 영양소와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어 훌륭한 영양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명태의 단백질은 완전단백질로 성장과 생식에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우리 인체의 체조직을 구성하고 체액·혈액의 중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질 좋은 비타민 A와 나이아신이 풍부하여 우리 인체의 피부와 점막에 없어서는 안될 식품으로 특히, 레티놀은 고운 피부 및 주름 방지에 탁월하다고 한다. 명태 애는 눈에 좋다고 하며, 명태 알은 토크페롤이 많아 생식기능의 정상화와 노화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영양원이고 명태 창란과 아가미는 칼슘이 많다. 명태곤지에는 특히 단백질과 인이 풍부하여 뼈, 치아 및 근육수축에 관여한다. 반면 지방 함량이 내장 중 가장 적어 맛이 담백한 명태살은 단백질은 물론이고 칼슘, 인, 철 등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다. 명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명태를 식재료로 활용한 요리들은 무수히 많다.

국, 찌개류로는 명태국, 생태모듬찌개, 명태지리, 동태고명지짐이, 명태매운탕, 명태무와찌개, 알탕, 명태완자탕 등이 있고, 전이나 별미류로는 명태전, 명태표고전, 명태완자, 명태김말이, 명태튀김, 명태탕수, 명태롤샌드위치, 명태죽(이유식), 명태알무침 등이 있다.

김치나 젓갈류로는 생태김치, 명태속대김치, 명태아가미깍두기, 창란젓깍두기, 명란젓, 창란젓, 명태식해, 아가미식해, 명태회 등이 있으며, 구이나 찜으로는 황태구이, 북어양념구이, 명태조림, 황태콩나물찜, 명태찜, 북어채무침, 명태알찜, 명태양배추찜 등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음식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돈다.

기존의 고성명태축제는 명태라는 어류와 음식으로써의 명태를 축제의 주 소재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여기에 지역의 민속문화자원이 부수적으로 활용되었다.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

2010년 행사에서 단 한 번도  
행사로 수성제례와 풍요제, 어선 퍼레이드 등이 행해졌고, 어선 가자미 바다낚시대회, 명태낚시찌기체험, 명태 투호 체험, 보망염기체험, 명태요리시식회, 가마솥 명태 곤지국 무료시식회, 맨손 활어잡기, 활어 이어달리기, 어선 노젓기체험, 가족낚시체험, 어선 끌기체험, 어선 무료 시승회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명태를 비롯한 수산물이라는 축제의 주요 소재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여흥거리와 지역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이나 연대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놀이들도 많이 배치되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별 노인 길거리장기대회, 다문화 가족 장기자랑, 읍면대항 팔씨



어선무료시승

과 참여율은 높았다.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명태라는 특산물 먹거리로써의 특성보다는 명태라는 소재에서 파생한 문화관광적인 요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축제프로그램에 반영되었다.

2010년 행사에서는 공연 및 의례행사로 수성제례와 풍요제, 어선 퍼레이드, 육해 군악대 공연, 평양예술단 초청공연, 어선 불꽃놀이 등이 행해졌고 어선 가자미 바다낚시대회, 명태낚시찌기체험, 명태 투호 체험, 보망염기체험, 명태요리시식회, 가마솥 명태 곤지국 무료시식회, 맨손 활어잡기, 활어 이어달리기, 어선 노젓기체험, 가족낚시체험, 어선 끌기체험, 어선 무료 시승회 등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명태를 비롯한 수산물이라는 축제의 주요 소재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여흥거리와 지역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이나 연대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놀이들도 많이 배치되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별 노인 길거리장기대회, 다문화 가족 장기자랑, 읍면대항 팔씨

름대회, 군민 노래자랑 등이 그것들이다. 물론 여전히 이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고성명태축제는 명태 홍보관(해양심층수 홍보관)이나 해군함·해경정 견학, 명태 덕장전시, 고성녹차 전시 및 시음 등으로 명태라는 수산물을 홍보하며 판매를 촉진하고 바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어획량이 상당히 감소한 명태를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축제의 주목적으로 하는 특산물 축제라는 컨셉으로부터 빠르면서도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것이다. 특산물의 직접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경우 축제의 효과는 지극히 한정적이어서 장기적인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산물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특산물을 주요 매력 인자로 활용할 경우 향후 지역의 대외적인 지명도는 물론이고, 특산물 판매효과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

이다. 특히 이러한 추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고성에서 유명한 특산물은 명태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고성군에서도 지금까지 명태라는 수산물의 판매를 통해 직접적인 지역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기획해오던 방향을 전환하여 직접적인 수산물 판매가 아니라 강원도의 대표적인 어항으로서의 고성군 대외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차원으로 축제의 기본방향과 컨셉을 전환하였다. 이것은 특산물을 소재로 하여 시작된 지역축제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0년부터 공연, 경연, 전시, 길거리 행사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이 구상되었던 것은 기존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문화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축제는 관광유동 인구가 많은 10월에 개최되었다. 이러한 축제의 시기조정은 지역의 생태적 자연조건을 기본적인 축제소재로 활용하는 동시에 축제의 문화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추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우리나라 전반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는 '생태문화적 축제'라는 범주에 고성명태축제를 포함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명태라는 수산물의 직접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차원적 축제에서 출발한 고성명태축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는 해양테마축제로 하루빨리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진제공 | 류정아]